



정읍시, 제2회 동학농민혁명배 직장인 농구대회 성료

정읍시 농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제2회 동학농민혁명배 직장인 농구대회'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정읍체육관에서 전북 지역 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정읍경찰서-SPO-CPO, 학교 주변 취약지 점검

정읍경찰서(서장 강경남)는 최근,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범죄예방진단팀(CPO)이 합동으로 학교 주변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신중 청소년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학원가 뒷골목, 공원 등 청소년 비행 우려 지역 일대의 방범 카메라(CCTV) 작동여부, 비상벨 등 치안 시설물을 면밀 진단했다.

남원 농촌종합지원센터, 배후마을 문화복지 서비스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는 15일, 송동면 안계마을에서 토탈공예 프로그램 참여 주민들과 함께 배후마을 주민 대상 문화복지 서비스를 진행, 이 프로그램은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송동면 기초거점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 대둔산 축제 성료... '아웃도어 메카'로 우뚝

백패킹·트레킹 등 체험형 프로그램 강화... 전국 산악 마니아들 '호평'

'2026 완주 대둔산 축제'가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되며 산악 익스트림·아웃도어 대표축제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남겼다.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대둔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펼쳐진 올해 축제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산악 마니아들이 방문했다.

밝은 도전으로, 바람은 힘입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올해 축제는 단순한 관람형 행사를 넘어, 참가자들이 대둔산의 비경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산악주제 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사전 접수 단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완주 9경 장거리 트레일'과 대둔산의 능선을 따라 걷는 '대둔산 완주 하이킹·백패킹'은 전국 산악인과 백패커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며 완주만의 독보적인 산악 활동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유감없이 증명했다.

아울러 축제장 한편에 마련된 '아웃도어 박람회' 구역에서는 최신 캠핑장비와 아웃도어 용품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번 축제는 개막식부터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해 큰 호평을 받았다. 기존의 딱딱한 의전이나 내빈들의 형식적인 인사말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방문객들이 함께 주인공이 되어 어우러지는 참여형 퍼포먼스로 축제의 문을 열었다.

이어진 나상현씨 밴드, 최인경 등 인기 뮤지션들의 공연



연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이러한 축제의 열기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고스란히 연결되었다. 완주군은 축제 방문객 팔찌 착용 시 인근 음식점, 대둔산 케이블카 및 호텔 사우나 할인 등 파격적인 연계 혜택을 제공해 축제의 활력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완주=염재복 기자



장계어린이집, 전북 119소방동요대회 '금상' 수상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 12일 열린 '제24회 전북특별자치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유치부 부문에서 장수소방서 대표로 출전한 장계어린이집이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5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주최 이번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동요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속 안전 수칙을 배우고, 나아가 지역 사회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장수소방서를 대표해 출전한 장계어린이집 원아들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K-POP 스타일의 소방동요인 'CPR'을 선곡해 무대에 올랐다. 어린이들은 심폐소생술(CPR)의 중요성과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가치를 담은 가사에 맞춰, 신나는 비트 위에서 절도 있으면서도 귀여운 단체 율동을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 기존의 전통적인 동요 틀을 깬 합적이고 활기찬 K-POP 스타일의 무대는 심사위원은 물론 현장에 참석한 관객들의 눈과 귀를 단숨에 사로잡으며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유앤미어린이집, 전북 119소방동요 경연 은상 수상

남원소방서는 지난 6월 12일, 제24회 전북특별자치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남원소방서 대표로 출전한 유앤미어린이집이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도내 15개 소방서를 대표하는 15개 팀(유치부 9팀, 초등부 6팀)이 참가했으며, 심사는 가창력, 작곡 완성도,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결정. 유앤미어린이집은 K-POP 스타일의 소방동요 '함께 쓰는 이야기'로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경연은 어린이들이 소방동요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배우고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참가 어린이들은 노래와 율동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즐겁게 전달했다.

남원소방서장은 "이번 경합이 아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실소방서 대표 희망어린이집, 119소방동요 경연 은상

임실소방서(서장 김삼곤)는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제24회 전북특별자치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임실소방서 대표로 출전한 희망어린이집이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희망어린이집 원아 20명은 K-POP 소방동요 '함께 쓰는 이야기'를 선보이며 밝고 활기찬 무대를 펼쳤다.

특히 원아들은 대회 준비 과정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합동심과 자신감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지도교사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고창소방서 고창어린이합창단, 전북 1위 대상 수상 쾌거

고창초·신림초·성내초 연합팀, 전국대회 출전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지난 12일 열린 제24회 전북특별자치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고창어린이합창단이 초등부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소방동요를 통해 화재 예방과 생활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치부 9개 팀과 초등부 6개 팀이 참가해 열린 경연을 펼쳤다.

고창소방서를 대표해 출전한 고창어린이합창단은 고창초등학교, 신림초등학교, 성내초등학교 학생 27명으로 구성된 연합팀으로, 성내초등학교 정소망 교사를 비롯한 2명의 지도교사의 헌신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꾸준한 연습을 바탕으로 초등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어린이들은 밝고 힘찬 목소리로 안전의 소중함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노래하며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고, 고창군을 대표하는 어린이 합창단으로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다. 이번 대상 수상으로 고창어린이합창단은 오는 9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해 전국의 우수 합창단과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경승 고창소방서장은 "고창어린이합창단의 대상 수상과 전국대회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학생들이 흘린 땀과 노력은 물론, 정소망 선생님을 비롯한 두 분의 지도교사께서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신 덕분에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896	임실지사 010-98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88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8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8157
	군산지사 010-8329-68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8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종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